

지금 격암유록 예언대로 괴질이 돌고 있다면 곧 태양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모든 빛이 없어진다는 징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해 1월 중순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총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2월 18일 신천지 교인 31번째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열흘 전부터 수퍼감염자로 확보하며 의료기관과 교회 등에 바이러스를 퍼뜨렸기에 결국 국내코로나19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월 9일에는 중국 우한 지역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관리하는 부산 야고보 지파에서 지파장의 주일 예배설교가 있었는데, 그 야고보 지파장은 예배에 참석한 신천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신천지 지교회(支教會)가 있는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원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었고 7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안 걸렸어! 감사하지요. 우리가 딱 제대로 서 있으면,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특히 요약 편집 및 보충)"라고 하자 그곳에 모인 교인들은 "아멘"을 외치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출처: 중국 교회 폐쇄했다더니... "우한 신천지 신도, 코로나 안 걸려" 녹취 과문 / KBS뉴스(News), 유튜브 https://youtube/iw_zmUEOmY]

"예수님을 철저히 잘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신자만큼은 어떤 괴질에도 걸리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제목의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면, 2천 년 전 총독 빌라도의 무죄선고를 받은 예수가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연극으로 유대교인과 바리새인들을 속이고 로마병정 호위 속에 프랑스 '르네 데 사토(Rennes-Le-Chateau)' 마을로 망명하여 84살까지 살다가 죽어서 그의 무덤이 '르네 데 사토' 마을 근교 '카르두 산(Mont Cardou)'에 있다고 한들 예수의 치유능력만큼은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괴질에는 자신만 만했던 예수 교인들의 믿음도 통하지 않았다. "우리 신자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했던 신천지는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또한 교인 수 10만 명의 명성교회 부목사의 코로나19 확진판정에 교회를 전부 다 폐쇄하고 주일 예배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였다(2020.02.25). 같



구세주의 이마, 뺨, 코 등 머리와 얼굴 전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김로이슬 (이사야 26장 19절)

은 날 신도가 152만여 명인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1831년 교구 설립 이래 처음으로 미사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스 괴질을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한 구세주 조희성님은 "만일 괴질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번진다면 그때에는 우리나라도 괴질이 들어옵니다. 그때에도 우리 승리제단 교인들만은 괴질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교인들은 괴질에 걸립니다."라고 예언한 바 있다. [2008.06.15. 승리신문 제411호 1면 기사 인용]

눈을 통하여 마귀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하다

코로나19 괴질은 인간을 숙주로 번식하는 바이러스이다. 흔히 병마(病魔)라는 언어를 풀이하면, 인간의 병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최초로 생겨날 때, 그 최초의 인간을 주관하는 마음(나라는 주체의식)이 곧 선악과(善惡果: 마귀 영)라는 바이러스이다. (선악과 바이러스)는 인간의 몸을 숙주로 번식하고 있으며, 또한 (선악과 바이러스)는 인간 육체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영(靈)을 먹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일종의 기생생물이다.

태초의 (선악과 바이러스)는 어둠의 영이요, 무지(無知)한 악령(惡靈)으로서 이른바 '마귀' 또는 '마귀니'로 불린다.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에 (선악과 바이러스)가 하나님을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니까 마귀 들린 슬래드 꼭 같은 뱀을 만든 적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력이 있지만, 마귀는 모방력에 능한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방한 마귀가 아담과 해와 앞에

나타났을 때,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눈이 풀려져라 하고 마귀를 바라봤는데, 그 순간 마귀의 영이 아담과 해와의 눈을 통하여 침투해 들어올 수 있었다.

아담과 해와가 마귀 즉 (선악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눈을 통하여 마귀가 들어온 다음에는 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의 하나님 영을 사로잡아 마귀 속에 가둬놓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마귀가 '나라는 의식'이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인간의 실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은 (선악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다. 현재 인간의 육신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生命)은, (선악과 바이러스)가 '나라는 주체의식'으로 활동할 때에 에너지로 공급되어 점진적으로 소멸하여 결국 늙고 병드는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영이 소진되자마자 육체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마귀와 하나님의 병존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까닭이다.

성경과 불경에 "나를 항상 버려라!" 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나'를 버리면 성물하여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나'를 버리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된 사람은 영생한다.

구세주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야는 저 공중 하늘에 있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선악과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이 석방되어 본래의 '나'라는 주체의식으로 회복한 자이다. 성경에서는 (선악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치료약을 개발하는 데 6천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그 치료약을 '치료하는 광선' 또는 '땀에서 죽음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 불경에도 똑같이 그 치료약을 사람으로 하여금 생로병사에서 해탈하게 하는 명약(名藥)이 되는 '감로(甘露)'로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그 밖에 무수한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만능 백신이, 곧 모든 바이러스의 모태(母胎)가 되는 (선악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치료약 즉 감로이슬이다. "지금 격암유록 예언의 말씀대로 괴질이 돌고 있다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 안 가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지구 땅 위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태양이 어두워지고 전깃불이 어두워지고 모든 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구세주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 2003.03.19. 이진자 조희성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제단의 식구들만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을 다 구원할 목적으로 구세주를 6천 년이나 가나니 세월 동안 키웠다. 그리하여 인간 몸을 입고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될 구세주의 얼굴을, 사망권을 잡은 마귀를 죽이는 상호(상호)로 재창조할 수 있었다. 이는 옛날에 마귀가 하나님을 사로잡을 때 사용한 무기를 역이용하려는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였다. 격암유록 새 41장에도 '이전기타파말(利機機打破滅)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라보는 순간 마귀를 박멸소탕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구세주 조희성님의 사진에는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분신이 붙어 있기에, 초초로 구세주님(승미복)을 바라보아 침투하는 어떠한 바이러스도 박멸되고 설령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감로이슬에 의해서 강력한 면역 체질로 변한 몸은 전혀 상하지 않는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84>
"마귀를 전멸시키는 이긴자의 얼굴"

이긴자가 마귀를 죽이는 무기를 주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써먹지 못해서 마귀에게 항상 지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고 있다. 초초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무량대수 마귀 일 초 동안에 무량대수 횡수로 계속해서 영원무궁토록 몽땅 뽀

리째 뽑아서, 성령의 검으로 난도질하여, 성령의 도끼로 짓이겨서 성령의 멧돌로 갈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유향 불로 박멸소탕"하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기도를 해야 전도도 잘되고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마귀를 박멸시키는 무기가 바로 이긴자의 얼굴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오장의 작용과 기능의 이해(허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폐의 중요성을 이 한마디로 실감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 가슴 속에는 크게 가운데에 심장이 있고, 폐는 오른쪽, 왼쪽에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숨을 들이킬 때, 공기는 코나 입을 통해 들어가서 성대를 지나 기관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기관은 오른쪽 기관지와 왼쪽 기관지로 나누어지고 이 기관지는 더 작은 기관지로 갈라져서 폐와 이어져 있습니다. 폐는 폐포라 불리는 작은 공기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고, 이 폐포에서 적혈구와 결합하여 인체 각 부위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수거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사람은 잠시 호흡을 멈출 수 있지만, 4분 이상 멈추게 되면 영원히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살아 숨쉬지 못하면 곧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폐의 중요성을 모르면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죄가 될 것입니다.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폐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폐(肺)는 기(氣)와 호흡(呼吸)을 주관합니다. 사람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진기(眞氣)'라고 하는데 이 진기를 각 기관에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폐(肺)입니다. 진기는 호흡을 통해 들어온 외부의 청기(淸氣: 맑은 공기)와 입을 통해 들어온 음식이 비(脾)에서 소화되어 그 중 맑고 가벼운 물질인 청기(淸氣)가 폐(肺)로 올라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피 순환과 체액 대사를 조절하

는 기능이 있습니다. 폐(肺)는 기(氣)를 주관하므로 심(心)이 혈을 운행시키는데 폐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폐(肺)는 수분이나 체액 대사에 관여하는데 이를 폐(肺)의 '숙강(肅降)작용'이라고 합니다. '숙강'이란 기를 맑게 하여 내려 보낸다는 뜻으로 폐가 오장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기(氣)와 비(脾)에서 올라온 청기를 결합시켜 진기를 만들어 아래에 있는 장으로 내려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폐(肺)는 혈과 체액(영양 물질 등)이 운행하는 데 조절자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지요.

셋째, 피부(皮毛: 피부와 털), 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피부와 코는 모두 몸의 내부와 외부 환경이 기(氣)를 주고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氣)를 주관하는 폐(肺)와 관련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코는 기(氣)가 직접 폐(肺)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기관이지만, 피부는 모공을 통해 기(氣)가 들어오거나 나게 됩니다. 폐(肺)가 약한 사람은 피부가 약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피부에 핏기가 없고 꺼칠해지기도 합니다.

폐 환기는 일차적으로 근육성 횡격막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흡기(흡숨)는 횡격막 근육의 수축이 횡격막을 편평하게 하여 흉강 압력을 저하시켜 일어납니다. 호기(탈숨)는 횡격막 근육이 다시 이완되면 흉강의 부피가 감소하고, 복부와 폐의 탄력성으로 인해 흉강 압력이 다시 증가하여 일어납니다.

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 후 폐 건강에 힘써야 숨이 잘 쉬어질 것입니다.* 김주호 기자

고조선 시대의 오염화 와당Ⅳ

(오염화 와당)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사라진 단지파가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가나안 소라성읍을 떠나 동으로 이주할 때, 시리아에서 채집한 무궁화(영생 상징) 꽃씨를 한반도

에 가져와서 널리 전파하고자 두려하는 내용이 원시 가나안어 (Proto-Canaanite)와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로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현대 히브리어로 해독한 것이다.* 박태선 기자



유물명칭: 오염화 와당(수막새), 출토지역: 평양 대동강 유역 (평천리 추정), 사진출처: 『朝鮮五堦圖譜』 2권, 도194 동번(同範)와당 소장처: 국립광주박물관(유물번호_8464/구215), 경희대중앙박물관(유물번호_301429-000), 일본 테즈카야마 대학 부속 박물관 소장

오염화수막새 원형의 문자 해석: 오염된 무궁화꽃을 많이 번식시켜라 Let's create lots of five-leaves flowers. Includes images of the coins and their inscriptions in various scripts.

오염화수막새 오른쪽 문자 해석: 추위로부터 어린 가지들 보호하라 Protect the sprigs from cold. Includes images of the coins and their inscriptions in various scripts.